몸 독신은 선택, 마음 독신은 필수

(고린도전서 7:25~40)

25.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26.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27.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놓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28.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29.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 후부터 아내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30.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31.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몸 독신은 선택, 마음 독신은 필수>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몸 독신은 선택, 마음 독신은 필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결혼문제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 전체에서 앞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독신 선호를 뚜렷하게 드러내 보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전체를 대할 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문제에 대해 묻는 고린도 교인들의 질문에 대해 1절에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7장 전체에서 이 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혼과 연관하여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는 율법과 규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결혼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대하는 성도의 태도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본문의 주제는 결혼이 아니라 결혼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들의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결혼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대하는 기본태도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20절에서는 결혼문제와는 상관없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고 하였습니다. 노예로 부름을 받았으면 노예로, 자유인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자유인으로 부름을 받은 그때 그 상태 그대로 주력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목을 "몸 독신은 선택, 마음 독신은 필수"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이 제목은 7장 전체에 걸쳐서 보이는 사도 바울의 독신 선호가 특정한 사상이나 주의가 아님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의 독신을 표현하고자 몸의 독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도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결혼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속내를 살펴보면 마음의 독신을 권고하는 것으로 마음의 짝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독신을 이야기하려다 보니 몸의 독신을 드러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먼저 살펴볼 부분은 2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앞에 반복하여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의 독신 선호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28절을 보면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20절의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는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된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처녀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처녀의 상태로 지내면 되고, 총각이 부르심을 받았다면 총각의 상태로 지내면 되지 않느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독신을 이야기하는 이유로 임박한 환난과 육신에 주어질 고난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임박한 환난이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온 세상에 임하게 될 대 환난을 염두에 둔 것일 수도 있고 캘빈이나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당대의 박해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환난의 시기가 아닌 환난의 특

징입니다. 환난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마음을 붙인 대상의 없어짐입니다. 집 앞에 있던 쓰레기가 없어졌다고 환난은 아닙니다. 마음을 붙이고 있고 마음으로 붙잡고 있는 것들이 없어질 때 환난입니다. 마음을 붙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질 때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없어져도 마음에서 전혀 고통을 느낄 수 없다면 그것은 환난이 아니라 정돈이고 청소일 뿐입니다. 돈이 없어졌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난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돈을 붙잡지 않았다면 돈이 없어져도 환난은 아닙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서 건강을 붙잡지 않았다면 건강이 없어져도 환난이 될 수 없습니다. 환난이 아니라면 정돈이고 정리이며 상황이 바뀌는 것입니다. 환난이 문제인 이유는 마음이 꼭 붙잡아서 살이 된 것들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에서는 찢어지는 고통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난이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혼이 왜 임박한 환난으로 인해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라고 할까요? 반대로 환난이나 박해가 임했을 때 처녀총각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으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에 고난이란 육신으로 맺는 관계와 연관이 있습니다. 환난과 박해를 당할 때는 내가 고통을 느끼지만 배우자도 똑같은 고통을 받기에 그 고통이 가중된다는 뜻입니다. 결혼이라는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마음의 측면에서 볼 때는 마음 붙일 곳이 하나 더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마음 붙일 곳이 늘어난 만큼 환난으로 인한 상실을 겪을 때 마음의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대표적 예를 욥에게서 봅니다. 욥은 열 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있었기에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마음을 붙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많이 있었기에 마찬가지로 재산에 마음을 붙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한순간에 자녀 열 명이 죽고 재산도 다 잃으며 엄청난 마음의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욥의 대단함이 드러납니다. 욥은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등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난을 통하여 그동안 마음을 붙이고 있던 것들이 다 없어졌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서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나가고 나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비로소 보게 됩니다. 마음에 다른 것들이 붙어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붙였다는 것은 마음으로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욥의 마음에서 좋아했던 것들이 다 제거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좋아하는 것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보시기 위해 욥을 시

험하셨습니다. 다 없어지는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결함이란 곧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붙어있는 상태가 제거된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이유에서 사도 바울은 마음에 더 이상 붙일 것을 찾으려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 붙일 것을 끌어모으면 환난을 당했을 때 느낄 고통만 더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29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 후부터 아내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 역시 결국 혼자 지내는 것이 낫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태도는 지나치다 싶을 만큼 단호합니다. 인간관계를 탈탈 터는 것처럼 보이기에 더불어 사는 맛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정과 의리도 없는 이기적이고 지나친 개인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사상이나 주의를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개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대전제로 하여 인간관계를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한다는 절대원칙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대원칙을 고수하며 세상일을 바라볼 때 독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29~31절까지의 말씀에서 집중해야 될 곳은 29절의 “그 때”와 31절 마지막 부분의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라는 부분입니다. 이로부터 사도 바울이 독신 선호를 권장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40절까지 이어지는 7장 전체 내용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그 때”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캘빈이 말한 것처럼 개인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죽음이란 세상의 종말 때와 마찬가지 효과를 가져 옵니다. 내가 죽으면 나에게서 세상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으면서 세상이 없어지는 것이나 죽음으로써 이 세상이 없어지는 것이나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를 놓고 보면 사도 바울이 때를 언급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이 세상의 외형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때가 되면 없어질 것입니다. 때가 되지 않았어도 없어질 것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없어질 것들이기에 언제 없어져도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죽었을 때 없어지든지,

예수님의 재림 때 전부 없어지든지 어찌 되었든 세상은 없어질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있음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있게 된 모든 것들은 없어질 것들입니다.

"세상의 외형"이란 육체의 눈에 보이는 세상의 현상입니다. 외형이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내용도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 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늘"이란 천국(heaven)이 아닌 별들이 있는 천체(sky)를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우주와 이 세상은 불에 타서 풀어지듯이 없어져 버릴 것이고, 그동안 세상에 있었으나 눈에 보이지 않던 일들이 드러나리라는 것입니다. 외형은 없어지고 그중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었던 일이란 마음의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외형이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일이 내용입니다. 마음은 있음을 느끼는 의식 작용과 좋음을 소망하는 욕구 작용이 있습니다. 이 의식 작용과 욕구 작용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언급된 "그중에 있는 모든 일"입니다. 무엇을 있다고 의식하고 무엇을 좋다고 바랐는지가 드러나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본래 하나님만을 유일한 있음으로 의식하고 하나님만을 유일한 좋음으로 욕구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에서 사장님의 존재감이나 배우자의 존재감을 느낀다면 더러워진 상태입니다.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라고 해서 하나님보다 대통령의 존재감을 의식하고 좋음을 욕구할 수는 없습니다. 깨끗함이란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될 곳에 있는 상태입니다. 마음에는 하나님의 존재감만 의식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좋음만 욕구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의 존재감이 의식되고 좋음을 욕구하게 되었다면 마음은 이미 더러워진 상태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입술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을 수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가리키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감만을 의식하고, 그 이름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좋음만을 욕구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외형에 마음을 둠으로써 마음은 더러워집니다. 그러나 세상의 외형은 없어질 것들입니다. 내가 죽어서 없어지든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없어지든지 결국은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없어질 세상의 외형 때문에 일평생을 수고하

고 애쓰고 정성을 들이며 살았다면 어떨까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애정을 쏟았던 세상의 외형이 다 없어지고 나면 이제 세상 때문에 더러워진 마음의 얼룩만 남게 됩니다. 이 마음의 얼룩이 지옥행으로 결정된 상태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없어질 것들인 세상의 외형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담아야 될 마음 안에 세상의 외형을 담음으로써 더러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 얼룩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깨끗하게 지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야기를 몇 가지 상세한 예를 통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은 이 세상의 외형에 대해서는 사물에 대한 관계든 사람에 대한 관계든 독신이어야 합니다. 마음은 무엇에도 붙으면 안 되고 짝을 이루면 안 됩니다. 이것은 결혼에 대한 문제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차를 좋아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천신만고 끝에 좋아하던 외제차를 사게 되었습니다. 일 년은 외제차가 마음의 짝이 됩니다. 그러는 동안에 마음은 날마다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외제차 자체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붙음으로 인해 더럽게 하는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결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9절을 보면 “…아내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아내를 육체로 만납니다. 눈에 보이는 아내는 세상의 외형입니다. 따라서 아내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정성을 들이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염려를 할지라도 아내는 때가 되면 없어질 것입니다. 아내가 없어지고 나면 잘 지냈든지 못 지냈든지 남는 것은 아내라는 마음의 얼룩입니다. 아내가 더럽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아내를 마음에 담을 때에 마음은 더러워집니다. 육개장은 그릇 안에 있을 때에는 더럽지 않습니다. 먹고 싶은 맛있는 음식입니다. 그러나 육개장이 하얀 와이셔츠에 묻었다면 더러움이 발생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은 하얀색 비단 같아서 배우자가 묻어서는 안 됩니다.
이로부터 “…아내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십자가 생활화를 하게 되었다면 마음에서 세상의 외형을 붙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모셔야 될 마음으로 아내와 관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독신이 되어야 합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육체에서 비롯된 세상 외형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유지하다가 아내가 죽을 때에 세상의 외형은 없어지고 마음에는 아내라는 더러움만 남게 됩니다. 아직 아내가 있을 때 마음에

서 독신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하나님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음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부부관계를 청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준비가 되면 하나님의 복사판 영이신 성령이 임하셔서 아내와 관계해 나가시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의 일상에 개입하시는 영이십니다. 특별한 사명이나 일에도 가담하시지만 그것만을 위하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부부생활도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지 않으면 전도도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부부생활도 할 수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령과 무관하게 부부생활을 해나갑니다. 부부로서 배우자와 말하고 대화하고 의논하고 싸우기도 하며 전부 자기능력으로 관계합니다. 그러나 본래 사람은 그렇게 지음 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배우자 앞에서도 마음의 독신을 유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마음이 흰색 와이셔츠라면 배우자는 육개장입니다. 아무리 육개장이 맛있더라도 그것을 와이셔츠에 붓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은 흰색을 유지하면서 부부관계를 해나가야 합니다. 흰색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배우자에 대해 하나님의 마음인 성령이 임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처럼 쉬운 일이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만 기억하면 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 죽었음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일한 있음이시고 유일한 좋음이심도 믿게 됩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어렵게 생각한다면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기만 하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있음이시고 유일한 좋음이심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것은 눈과 귀로 확인할 수 없기에 믿음을 감각 삼아야 합니다.

또 이어지는 30절을 보면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참 억지스럽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울 일이 생겼는데 울 일이 없는 자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니 무척 부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천사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떨지를 생각해본다면 이것이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세상일로 우는 모습을 본다면 꼴불견으로 여길 것입니다.

사람은 울 일이 생길 때에는 우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못 벌었다고 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 나빠졌다고 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웁니다. 그런데 운다는 것은 마음에서 세상의 외형을 그만큼 깊이 받아들였다는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라고 하였습니다. 울 일이 있는데도 전혀 울 일이 없는 사람처럼 되라는 것은 마음이 울 이유를 제공하는 세상에 대해 짝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은 독신을 이루어야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외톨이가 되어야 합니다. 울어야 될 이유를 제공하는 대상과 상황과 짝을 이루어서는 안 됩니다. 또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은 계속 이야기 되어온 결혼문제와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마음의 독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라면 결혼이라는 문제를 앞에 두었을 때 마음의 독신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울 정도로 이 세상의 외형에 정성을 쏟더라도 그것은 결국 없어질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날 것입니다. 울며 매달리던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마음에서는 그 일로 인해 씻을 길이 없는 얼룩이 남게 됩니다. 죽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기회가 없어졌다면 더는 마음의 얼룩을 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살아있을 동안에만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십자가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더는 붙잡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기 전까지 붙잡아야 하고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붙잡아야만 합니다. 그때까지 십자가를 붙잡지 못하면 기회가 없습니다.

마음은 하나님만을 받아들여야 될 하얀 실크 와이셔츠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일로 인해서 울게 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마음에 된장 같은 세상일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붙잡지 않아서 깨끗해질 기회조차 잃었습니다. 울 일이 있지만 울 일이 없는 자처럼 되라는 사도 바울의 말을 귓등으로 듣고 흘려버린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죽거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울 정도로 정성을 들인 그 일은 없어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더는 십자가를 붙잡을 수 없기에 그

일이 영원한 얼룩으로 남게 됩니다. 영원한 얼룩과 더러움을 가지고 가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금 기독교 종교인들이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외형을 얻는 일에 정성을 들이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노력하고 사랑하고 애정을 표현해도 결국은 다 지나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천국에 가리라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마음에 얼룩과 더러움이 덕지덕지 붙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임을 모릅니다. 더러움이 새까맣다 못해 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마음의 독신은 곧 마음의 청결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34절을 보면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처녀는 마음의 독신이 이루어진 상태를 가리킵니다. 시집간 자는 반대로 마음의 독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마음의 독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세상의 삶 자체도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하얀색 비단으로 유지하면서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기 위해서는 마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일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의 외형에 대해 죽은 자임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는 자아의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에서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백년을 믿어도 주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대해 죽은 자임을 믿을 때 마음의 독신은 이루어집니다.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라고 하였습니다. 매매의 목적은 이윤추구입니다. 이익을 추구하고 재물을 모으는 자들이 없는 자처럼 되라니 매매를 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얀색 비단 같은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내 몸을 움직이실 때 매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매매를 통해서 갖게 되는 이익과 재물에 짝을 이루어 달라붙으면 더러워지게 됩니다. 이익도 재물도 언젠가는 없어지게 될 것들입니다.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쌓아둔 재산도, 장사도, 기업도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과 짝을 이루고 있었던 마음에는 더러운 얼룩만 남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고 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의 외형에 대해 죽었음을 쉬지 않고 고백할 때에 마음은 하얀색 비단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마음의 독신입니다. 마음이 이 세상에 대해 독신이 되지 않는다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짝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결혼이라는 문제를 바라보는 성도의 태도에서 핵심은 마음의 독신입니다. 마음의 독신을 이루었을 때 하얀색 비단 같은 마음에는 똑같이 하얀색 비단 같은 성령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결혼을 하게 하신다면 결혼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독신을 선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이 나온 이유는 마음의 독신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위해 육신의 독신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이 독신에 대해 유리하다, 더 낫다고 하는 말은 규정이나 율법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35절에서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였던 바와 같습니다.
독신 선호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마음에서 짝이 그리워질 때마다 짝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짝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마음이 독신이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마음이 독신이 되면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습니다. 7장 1절로부터 40절까지의 핵심내용은 무엇이든 세상의 외형을 대할 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마음의 독신을 이룸으로써 하얀색 비단 같은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게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게 하시고 다시 더럽혀지지 않기 위하여 주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외형들에 대해 죽은 자임을 굳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